

David A.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4, 오늘날 히브리서 설교의 핵심 초점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이 마지막 세션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여러 측면과 이 설교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의 주석, *Perseverance and Gratitude*와 저의 최근 저서, *Hebrews, Grace, and Gratitude*에서 히브리서 전체에 설교하기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설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부르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와 우리 회중에게 계속 말하는 다섯 가지 핵심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언급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투자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저자는 청중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이전 계시가 찬란한 명확성과 충만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은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메시지보다 우선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설교자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는지 여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적절한 반응을 낳는지

여부. 이것들은 이 저자에게 있어서 생사의 문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윤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회중 문화에 맞는 어떤 재구성으로, 같은 용어로가 아니라면,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하늘과 땅은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위대한 날에 흔들리고 제거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너머에는 더 우월한 영원한 영역, 즉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하늘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 무리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현존을 누리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다가올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더 낫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더 좋고 오래가는 소유물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고향과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우리의 영원한 도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태양이 우리를 정화시킨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환영받기 위해 여기에서 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다음 삶의 수백만 년에 달려 있다고 말한 17세기 시인이자 설교자 존 던의 말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성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덜한 즐거움과 추구를 위해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의 첫 독자 중 일부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심의 초점을 발견하고,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 일시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그들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는 데서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신자의 상황은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그들의 경쟁은 실제로 피의 지경에 이르렀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욕, 학대, 경제적 박탈, 협박, 고문, 심지어 처형을 통해 많은 사회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자유, 가족, 심지어 생명 자체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대체하도록 시도합니다. 서구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사우처럼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권을 팔고자 하는 유혹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봉사에 투자하고, 미디어에서 홍보하고 세속적인 이웃과 친구들이 강화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지위의 제품을 얻기 위해,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우리의 친자녀를 포함한 젊은 신자들을 징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아무런 기여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추구하고 관심사에 얼마나 자주 주의가 산만해지는지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러한 모든 재화는 일시적인 영역에 속하며, 지속되지 않는 세상에 속하며, 그 위에 삶을 세운 모든 사람과 함께 흔들리게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항상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경고 신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과 정치적 조치의 변동성에서 불안한 평화가 본격적인 갈등으로 폭발하는 용이성, 범죄와 자연 재해에 대한 인간 경험의 종속을 인식해야 합니다 . 이것들은 모두 기본적인 불안정성과 모든 세속적 인 것들 의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오래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와의 우정과 행위의 추구이며, 아마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만이 이 눈에 보이는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안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중한 사람에 비유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과 미래의 현실을 우리의 모든 심의를 위한 나침반으로 바라보는 더 넓은 관점에 근거하여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얇은 급여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삶을 명령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 개입과 하나님의 약속의 수용, 그리고 이 세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목표로 이 세상의 상황에 대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았고, 그들의 모범은 우리와 우리 회중 앞에 있는 길을 계속 밝혀줍니다.

회중에게 계속 전한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가로지른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위한 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포위당한 회중 앞에 당근을 내밀어 그들을 영원한 영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여정에서 가지고 다니는 넘치는 풍요의 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현존에 들어가기로 갈구해야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그 과정에서 기진맥진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믿는 이들이 삶에서 더 충만한 효과를 거두도록 허용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설교에서 충실함을 촉진하고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응답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행동 과정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닳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19, 20.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안전과 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우리는 그 삶을 건설하는 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안전과 절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13:8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설교자는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지만 당신은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땅과 하늘은 변할 것이지만 당신은 동일합니다.

저자는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초와 그것을 세운 사람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초 사이의 대조로 설교를 효과적으로 괄호로 묶었습니다. 이 두 본문, 1:12와 13:8에서 동일함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변화성과 신뢰할 수 없음에 반대됩니다.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반의 로마 연설가 디오 크리소스툼은 불신에 대한 그의 연설의 맥락에서 매우 유용한 비교 텍스트를 제공하며, 인간에게는 일관성이나 진실성이 전혀 없다고 불평합니다. 디오는 누군가가 운에 대해 말한 것은 인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즉, 아무도 내일까지 지금처럼 남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서로에게 다른 조언을 하며, 한 가지 방법이 편리하다고 믿고 결국 다른 방법을 따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은혜처럼요. 오히려 그의 은혜는 항상 그의 신실한 자들에게 존재하며,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안정의 원천이 됩니다.

약속하신 분은 참으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그들의 희망에 대한 더욱 신뢰할 만하고 더욱 안정적인 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신뢰할 수 없음에 대한 저자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기적으로 봅니다.

이 세기에 우리는 경제가 격렬하게 변동하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투자자들을 들뜨게 하고, 때로는 당황하게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취약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 자체가 연약합니다.

허리케인 하나가 수백 가족의 삶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믿음직한 기초, 영혼의 닻. 좋은 소식은 예수께서 지금과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하면 그러한 삶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생깁니다. 주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통 기도서에는 사순절 다섯 번째 일요일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회중이 이 청원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원하도록 허락하시어 세상의 빠르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에 확실히 고정되게 하소서.

예수는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이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한 닻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에 고정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경험을 통해 그들을 계속 지탱하실 수 있고 세상의 적대감에 직면하여 정복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고 회중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투쟁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은 입술과 개인적인 헌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도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적 힘, 확신, 위로의 내적 자원. 물질적 지원, 사랑의 보살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동원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동료 신자들이 주는 격려의 외적 자원. 절망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믿음에 대한 도전은 없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단체 모두 영적 훈련이며, 그 힘과 중요성은 과대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기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권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혜택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원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주제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임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지속적인 헌신과 우리와의 연결을 표현하며, 설교자가 7장 25절에서 말했듯이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기 위해 살아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거나 우리 자신의 약함에 배신당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비난하는 시선이 아닌 동정심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투쟁을 알고 승리의 길을 찾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촉구하듯이, 이러한 도전이 생길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은 유혹과 도전을 극복한 누군가의 도움을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사제적 부름의 존엄성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살고 계시고 계속 살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잡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엄과 명예를 이행하는 일의 일부이며, 예수께서는 성전과 성막의 레위 제사장들에게만 공식적으로 예약된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또한 흔들리지 않는 영역과 하나님의 완전하고 중재되지 않은 현존으로의 마지막 진입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일상 생활에 힘을 얻거나 일시적인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여정의 끝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온 백성을 헌신하신 것은 또한 종교, 기도, 중보, 예배, 증거, 방문, 그리고 사역 전문가들에게 종교, 기도, 중보, 예배, 증거, 방문, 그리고 전도를 맡기는 것을 종식시킵니다. 많은 회중은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경계를 재확인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에서 벗어나는 데서 위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권리에 따른 하나님과 성소에 대한 접근 제한이 예수에게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극복한 불완전한 상태였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종교적 삶을 지상 성소,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본보기에 따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복음의 중요한 측면은 전임 사역을 위해 따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는 그녀를 위해 정하신 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증거, 예배, 사랑과 나눔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부름받은 기쁘게 하는 제사들입니다. 히브리서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세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본능적인 성향은 죄를 짓는 데 대한 우리의 성향의 근원이며, 제자로서의 삶을 끈기 있게 달리는 대신 절뚝거리며 나아가게 하는 이중적 사고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늦출 수 있는 모든 짐, 모든 방해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두 가지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향한 경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추구에 관해서, 설교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섹션에서 그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 심지어 우리가 승인과 수용을 구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염려에 관해서, 설교자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방금 탐구한 모든 *since we have*에 대한 대응어는 *let us have*입니다. *let us have gratitude*.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관대함을 더 잘 알게 되고 동료 신자들이 더 잘 알게 되도록 도울 때, 태양에서 말씀하신 그 관대함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커집니다. 신학과 윤리, 믿음과 응답, 신조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시작한 은혜 관계에 대한 저자의 말과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치르는 제자의 의무에 대한 말에서 함께 유지되고 상호 활력을 얻습니다. 은혜와 응답 사이의 연결은 신학과 윤리 사이의 관절, 경첩입니다.

저자는 윤리적 선택을 위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저자는 회중이 직면한 특정한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의 설교의 정경적 지위는 모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장 충분히 증명하고,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의 구원에 내재된 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보답을 제공할 행동 방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일시적인 쾌락과 재물에 쏟는 동안 이 관계에 대한 반쪽 마음은 우리의 위대한 후원자에게 공개적인 배교만큼이나 모욕이며, 따라서 똑같이 위험합니다.

은혜와 응답 사이의 이 연결은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감사의 흐름을 동료 신자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행위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의 관절, 힌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십니다. 저자가 6장 7절과 8절에서 비유한 것처럼, 위에서 비가 내려 농부와 땅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땅이 초목을 맺게 하는 것처럼, 비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투자하도록 이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섬기는 것을 계속함으로써 보여 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은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며, 저자에게 적어도 구원을 붙잡아 주는 더 나은 것들이 자신의 회중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1세기 용어로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 짐,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의 커다란 짐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무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마음과 말과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은사의 가치에 적합한 감사의 행동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은혜를 전파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회중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춤의 통일성, 아름다움, 유동성을 인식하도록 강요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각 개인, 각 신앙 공동체, 그리고 결국 우주 전체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신약 전체에서 은혜와 응답에 대한 강조는 정당화와 성화, 믿음, 제자도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공식화는 매우 날카롭고 요구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15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계속 사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분명히 예수와 그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생명은 생명으로 응답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의 훈계에 순종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 간단히 말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응답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궁극적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응답을 자극하면, 우리의 삶은 자아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의해 점점 더 인도되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반영하고, 주인에게 드릴 열매로 가득 차고, 그에 대해 친절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탕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불려일으키는 신실함과 충성심을 계속해서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굳건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저자가 선언한 것처럼, 은혜로 마음이 안전하거나 굳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값싼 은혜나, 더 나은

말로, 값싼 감사를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우리 회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설교는 우리에게 우리의 회중이 우리의 봉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응답할 기회를 제공하고, 감사하는 응답을 실행함으로써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대함에 응답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고귀함, 자존심, 그리스도인적 성실성을 발견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경험하는 모든 일에 통합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은혜의 아름다운 원형 춤을 반영하여 함께 모여, 우리가 경건함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인식하며 걷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간과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 네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서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인내로 경주를 달리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자원은 바로 서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서로에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으며, 교회를 지원, 격려, 책임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 스스로가 제자로서 성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회중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반자이며,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동반자이며, 동반자로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불신이 침투하는 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3장 12절에서 동료 제자들의 마음에 불신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매와 형제 모두가 충실한 순종에 주어지는 상에 마음을 고정시켜 아무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쏟아지는 다른 메시지에 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서로의 헌신을 강화하고, 사랑과 나눔의 행동으로 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격려, 지원,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의 도움 덕분에 가족의 혜택과 책임을 모두 물려받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실패할 때 동료 제자들로부터 이 격려, 지원, 그리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종교가 사적인 문제라는 현대 문화적 거짓말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매와 형제들의 일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격려, 경고, 그리고 지원의 선물을 제공할 은혜를 빚졌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고정되어 있으려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존 웨슬리의 반 모임은 이런 맥락에서 훌륭한 실험이었으며, 헌신적인 신자들의 소규모 모임을 모아 서로가 스스로 정한 약속에 충실하도록 도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든 일시적인 방해보다 더 원하도록 서로 격려했으며, 외부인의 비판 속에서도 자주 그러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소규모 그룹 사역이 등장하거나, 교회 외 사역과 연계하여 형성된 책임 그룹이 등장하면서, 여러 면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지원, 집중, 도움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 성장과 지원을 위한 장소이자 선교와 아웃리치의 거점으로서 우리의 집을 개방함에 따라 현대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서 필수적인 필요성으로 남아 있는 방식입니다. 각 교구민이 어려움, 유혹 또는 그저 산만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선함, 신뢰성, 의존성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간증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회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을 성찰하고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더 나아가 죄의 유혹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음성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유혹당하는 것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명확한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도움을 줄 자매나 형제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선물을 제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매나 형제가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삶의 성실성과 영원한 보상을 버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매나 형제가 자신의 비전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사회가 가장 변태자로 겨냥하는 자매와 형제에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이것은 특히 10장 32-34절과 13장 3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형제애, 자원, 기도로 구성원을 지원하려는 회중만이 지지자들의 충성심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의견 법원이 결국 누군가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서구 교회가 전 세계 자매와 형제의 필요, 특히 기독교가 제한된 종교인 국가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시급성과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족에 대한 우리의 정의도 커져야 합니다.

이 분야의 일부 행동 단계는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와 형제들의 곤경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나라에서 침묵을 깨세요.

종교 박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세요. 기도하세요.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순교자들이 남긴 가족을 구제하는 일을 회중의 선교 및 구제 활동의 일부로 삼으세요.

30년 전, Ashl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제 전 동료가 나이지리아의 한 선교사와 정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주로 이메일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목사에게 리소스 담당자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종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목사에게 격려를 제공하고, 대중의 목소리나 외부의 물질적 자원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인 필요를 듣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도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중이 선교사나 그 공동체의 접촉자, 예를 들어 귀국하는 유학생을 통해 세계 어딘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돕는 데 헌신한다면, 엄청난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신자는 깊은 개인적,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정직성과 개방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온 신도의 자원이 자신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어떤 중요한 사역을 개척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대담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경쟁하며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차선에서 표시된 우리만의 작은 차선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달리고, 손을 잡고, 넘어지는 사람을 들어올리기 위해 몸을 숙이고, 넘어지면 서로 손을 들어 올리고, 다친 사람을 돕고, 서로의 어깨에 팔을 얹습니다.

이 경주에서는 시작한 사람이 모두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게임의 주인의 뜻입니다.